

諧謔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

김경* · 이진경**

- | | |
|-----------------------------|-----------------------|
| 1. 들어가며 | 3. 『瀨尾編·科場』의諧謔性 구현 방식 |
| 2. 해학성을 중심으로 본 『瀨尾編·科場』의 양상 | 4. 『瀨尾編·科場』의 의의와 한계 |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李運永(1722~1794)의 저작인 『瀨尾編』에 수록된 <科場>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저술목적으로 밝혀진 諧謔性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운영이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한 서사 기재들을 중심으로 『영미편·과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즉 극적인 서사 전개를 위해 초월적 도움을 활용한 양상, 갈등의 심화와 욕망의 실현을 보여주기 위해 세밀한 묘사와 반전을 활용한 양상, 비정상성을 구현하기 위해 사실적 요소를 활용한 양상으로 나누어 논의를 개진하였다.

이를 통해 해학성이 부각된 일화는 공통적으로 장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품에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대부분 가상 인물로 설정되어있으며,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reload4@korea.ac.kr(주저자)

** 성균관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moksha99@daum.net(교신저자)

가상 인물은 응시자로 재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상 인물로의 설정은 사실성과 대비되는 허구성을 동원하기 위함이었고, 가상 인물이 응시자로 재설정된 것은 치열한 욕망의 성취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여기에도 흥미와 재미를 배가하기 위해 설정된 치밀한 구성까지 구현하였기에 소설적 성취를 이루었다.

● 주제어

李運永, 瀨尾編, 필기·야담, 科擧, 諧謔性

1. 들어가며

이 글은 李運永(1722~1794)의 『瀨尾編』에 수록된 <科場>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필자는 『영미편·과장』의 특징이 事實性과 諧謔性에 있다고 보았고, 이 양자의 특징이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하게 연계된 만큼 2가지 특징을 지면을 달리하여 기술하였다.¹⁾ 이 지면에서는 諧謔性이라는 관점을 통해 『영미편』을 살피고자 한다. 해학성은 웃음을 목적으로 한 재미를 의미한다. 다만 텍스트에만 한정하기보다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서사 전개 및 인물 설정, 구성 삽화 등의 형상화 방법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²⁾ 이는 해학성이 사실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저술목적과 연계한 「과장」의 특징 및 의의와 한계 살피고자 함이다.

『영미편』은 필기·야담집으로 공통 소재를 모아 場으로 엮었는데, <과장>에는 과거시험 관련 이야기 34편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필기·야담에서 과거시험은 대부분 당대 사회적 배경으로 언급되어왔다. 그럼에도 과거제도나 과거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及第’라는 욕망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불가피한 욕망을 현실화해 가는 서사의 의미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³⁾ 따라서 등장인물인 儒生의 삶에 주목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⁴⁾ 이

1) 필자는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I)-조선후기 科試의 事實性을 중심으로-」(동양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 2020년 8월 28일)에서 『영미편·과장』의 사실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영미편』의 기본 정보에 관한 소개 및 필기·야담으로서 『영미편』의 의미는 이 발표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해학은 언어뿐 아니라 태도, 동작, 표정, 말씨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언어적 표현에 의해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wit와 구별된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사전』 하, 국학자료원, 2006, 1129면 참조.

3) 임완혁은 難望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임완혁, 「서사문 속의 과거 이야기」, 『대동한문학』 38, 대동한

들의 科擧談은 주로 서사의 개연성을 마련하는 장치로 활용되어왔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영미편·과장』에서의 과거담은 사건의 장차나 시대적 배경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 상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허구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현하였다. 이러한 『영미편·과장』의 특징과 목적은 이운영의 자기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玉局齋遺稿』에서 “『영미편』을 엮은 것은 한가로운 일을 이기지 못해서인데, 사람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웃기고 싶다.”고 하였다.⁵⁾ 또한 “『영미편』이 완성되었다.(여항의 稗史와 예전에 겪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기록하여 두 책을 엮고서 이름하여 『영미편』이라고 했다. 이는 머무른 鵬舍가 潁水의 하류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⁶⁾ 이를 통해 『영미편』의 저술목적이 해학성에 있다는 것과,⁷⁾ 그 주된 내용은 ‘閭巷稗史’와 ‘日經歷事’ 이 두 가지로 양분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閭巷稗史’는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해학성과 더욱 긴밀히 연계되는 것으로, 正史가 아닌 주로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나 전대 문헌을 기록한 것임을 예측할 수

문학회, 2013, 201~202면 참조. 아울러 설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과거담을 유형 분류하는 방식과 서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김소영, 「과거설화의 유형과 의미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13; 김순재, 「설화에 나타난 과거길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96, 한국언어문학회, 2016.

- 4) 김학수, 「고시 공부는 비교도 안 될 처절한 과거 공부」,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 5) 李運永, 〈續和東閣五疊〉, 『玉局齋遺稿』 권7, “潁尾編成不耐閒, 好教人得折腰看.”
- 6) 李運永, 〈紀年錄〉, 『玉局齋遺稿』 卷10, “潁尾編成(雜記閭巷稗史及舊日經歷事, 成二冊, 名之曰, 潁尾篇. 盖所寓之鵬舍, 卽潁水之尾, 故也.)”
- 7) 실제 이운영은 해학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다. 『영미편』 뿐만 아니라 그의 문집인 『옥국재유고』와 〈순창가〉·〈임천별곡〉 등과 같은 작품에서 이운영의 해학적 기질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현웅, 「옥국재 『潁尾編』의 자료적 특징과 가치」, 『한국한문학회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333면; 임채은, 「玉局齋 李運永의 가사문학 연구 - 유희적 성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61~63면 참조.

있다. 또한, 『영미편』은 저술 동기와 내용에서 18세기 대표적인 필기·야담의 저자 및 그의 가문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영미편』의 〈單說〉과 〈拾遺〉사이 後記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예측할 수 있다.⁸⁾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필기·야담의 기본 속성과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유념하여 『영미편·과장』을 해학성의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미편』의 문학적 특질을 구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해학성이라 하여 허구적 요소로 한정하기보다는 비판과 풍자에 담긴 이면들도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미편·과장』 科擧談의 소재 연원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작품양상을 확인하고, 해학성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장치들이 활용되었는지를 통해 『영미편·과장』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영미편·과장』에서 閭巷稗史를 재수룩했다는 점을 구명함에 있어 전대 문헌의 變改인지, 재구성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타 필기·야담집에 수록된 과거담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치와 한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2. 해학성을 중심으로 본 『瀨尾編·科場』의 양상

조선후기 필기·야담에는 사실적인 배경에 허구적인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법이 널리 향유되었다. 그런데 사실적인 시대 배경에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식은 撰者의 목적이 사실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긴밀하고 유기적이며 생동감 있는 한 편의 이야기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⁹⁾ 『영

8) 李運永, 『瀨尾編』下, 72면, “余嘗見蘭室漫筆, 喜而有依樣胡盧之意. 會春雨支離, 閉戶無事, 遂隨筆書去, 至黃溪謫舍, 書至于此. 念世之流傳奇談之可書者, 無限如欲盡書, 則至老死無可已之時. 今日與人約赴濠上, 遂呼侍童, 屏去紙墨硯奩, 持竿而出, 吾之筆, 其絕於獲麟云爾, 時是辛丑穀雨日.” 이 기록에 의한다면 『蘭室漫筆』이 『영미편』의 저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난실만필』은 任邁(1711~1779)의 저술이며, 임매의 조부는 『天倪錄』의 저자인 任埜(1640~1724)이다.

9) 김준형은 시대의 아픔과 실상을 고발하기 위한 장치로 가상의 캐릭터를 창출했다

미편·과장』에서도 역사적인 배경에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식이 동원된다. 이는 해학성을 구현하는 방식의 하나이자 사실을 제공하겠다는 사실성의 담보와 별개로 『영미편』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성과 해학성은 흥미로운 서사 구조와 생동감을 형성할 때에는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진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미편·과장』의 양상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과장〉의 내용 및 관련 제반 사항¹⁰⁾

연번	제 목	등장인물	분류	특징	서사 기제
1	노인의 博覽으로 인해 급제한 소년	玄光宇	응시자	諧謔性	초월적 도움
2	외할아버지인 朴泰尙의 안목	朴泰尙	친인척	事實性	
3	족조인 朴師厚의 안목	朴師厚	친인척	事實性	
4	義의 程式에 대해 듣고 급제한 趙文命	趙文命	응시자	事實性	
5	여주 목사 吉夢에 의해 급제한 座首	무명씨	응시자	諧謔性	초월적 도움
6	최후의 시권을 위한 두 유생의 다툼	무명씨	응시자	諧謔性	묘사와 반전
7	변려문에 뛰어났으나 급제 못한 趙裕壽	趙裕壽	응시자	諧謔性	사실적 요소
8	여주 권생의 부정행위	李光佐	응시자	諧謔性	사실적 요소
9	鄭彦燮의 안목	鄭彦燮	감독관	諧謔性	사실적 요소
10	마장교에 황룡을 보려간 南九萬	南九萬	응시자	諧謔性	사실적 요소
11	과거시험은 운에 달렸지	무명씨	응시자	諧謔性	초월적 도움
12	과거에 무관심한 선비	무명씨	응시자	諧謔性	사실적 요소
13	換封으로 인해 70세에 급제한 선비	무명씨	응시자	諧謔性	초월적 도움
14	재치있는 대사성과 가혹한 永同 사도	무명씨	감독관	諧謔性	사실적 요소
15	金鎭圭가 뒤늦게 인정한 金春澤의 시문	金鎭圭, 金春澤	응시자	諧謔性	사실적 요소

고 보았고 이를 문학적 진실성이라 명명하였다. 김준형,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68~77면 참조.

- 10) 〈과장〉에는 제목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표〉에서 제목은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필자가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영미편』에는 다양한 서사 기제가 활용된다. 〈표〉에 제시된 서사 기제는 해당 일화에 가장 중추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諧謔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 (김경·이진경)

연번	제 목	등장인물	분류	특징	서사 기제
16	박태상의 조언으로 급제한 沈慶餘	朴泰尚, 沈慶餘	응시자	事實性	
17	李喜朝의 조언으로 급제한 아버지	李喜朝, 李箕重	친인척	事實性	
18	당파 때문에 급제한 중부 李台重	李台重, 李德重	친인척	事實性	
19	시권을 늦게 제출하는 폐단	洪啓迪	감독관	事實性	
20	1694년 갑술환국 이후 급제한 서인들	淸城(?)	응시자	事實性	
21	李箕鎭의 실재와 尹心宰의 반성	李箕鎭, 尹心宰	응시자	事實性	
22	증광생원시에 疑로 급제한 李敏坤	李敏坤	응시자	事實性	
23	시권을 제출하지 않은 李匡呂	李匡呂	응시자	諧謔性	묘사와 반전
24	제출하지 않았던 洪梓의 시권	李運永, 洪梓	자기일화	事實性	
25	대사성 李天輔와 연	李運永, 李天輔	자기일화	事實性	
26	이름 때문에 놀림의 대상이었던 尹勉升	尹勉升, 柳元之	자기일화	諧謔性	사실적 요소
27	족조인 李秉常의 일화	李秉常, 尹淳	친인척	事實性	
28	陞補試 응시 때 靑坡接 구경	李運永, 金履安	자기일화	事實性	
29	李德洞이 감동한 어떤 유생의 賦	李德洞	감독관	事實性	
30	40년 전과 지금의 감시 풍경	李秉常, 李運永	자기일화	事實性	
31	講經에 운으로 합격한 시골 선비	무명씨	응시자	諧謔性	묘사와 반전
32	應講에 講을 하지 않은 선비	무명씨	응시자	諧謔性	묘사와 반전
33	殿講에서 情慾 때문에 낙방한 선비와 應講에 대한 자신의 기억	무명씨, 李運永	자기일화	事實性, 諧謔性	사실적 요소
34	과거시험에 대한 기억과 自嘲	李運永, 尹士述	자기일화	事實性	

우선 내용상으로 보면 과거시험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

다. 무엇보다 이전 문헌이나 필기·야담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았던 일화가 주를 이룬다. 아울러 필기·야담에서 흔히 등장하는 부정사례에서부터 과거 제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화가 보이며, 등장인물들은 과거에 낙방하여 절망하는 자, 거벽을 고용하여 급제한 자, 초월적 도움을 통해 급제하는 자 등등이다.¹¹⁾ 이들의 다양한 일화에서도 과거시험의 선발방식과 그 공정함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을 해학성으로 바라보면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해학성과 관련된 일화는 17편이다. 이 17편 중 11편의 주인공으로 설정된 인물은 무명씨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무명씨로 설정된 인물이 대부분 응시자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다른 필기·야담에서 흔히 확인되는 것이지만, 『영미편』이 해학성 못지않게 사실성에도 비중을 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지점에서 이운영의 의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학성과 관련된 일화에서 일관되게 응시자가 서사를 이끌고 나가는 주체로 설정되어있고, 이는 다시 무명씨로 재설정되어 있다. 이 점은 사실관계를 떠나 오로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구현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일화마다 독립적 이야기이지만, 해학성 관점에서 본다면 <과장>의 일화들은 연계되어 있으며, 해학성을 위해 사실적인 배경을 동원하는 양상도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사 기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해학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영미편·과장』에서 해학성의 구현에는 다양한 서사 기제들이 사용되었고 이들 또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구성 삽화나 인물 형상화까지 다양한 방식들이 連用되기에 소설적 성취라 할 만큼 서서 전개에서 구조적인 형태

11) 권기성의 논의(「야담에 나타난 조선후기 과거문제의 현실과 대안적 상상력 -법과 정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7, 한국고소설학회, 2019, 161면.)에서 야담을 과거 현실과 관련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입신양명에 절망하여 과거의 길에서 사라진 자들, 거벽이나 서수를 고용하여 과거에 급제한 자들, 몰락한 가문의 적자들이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통해 과거에 급제하는 이야기로 구분하였다.

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 일화에 하나의 서사 기제만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학성을 구현하는데 중추적으로 사용되는 기제를 중심으로 양상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들을 3장에서 살피고자 한다.

3. 『瀨尾編·科場』의 諧謔性 구현 방식

이 장에서는 해학성의 구현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즉 운명과 같은 초월적 도움이나 갈등과 욕망의 실현 과정 및 상식의 파괴와 같은 비정상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1) 초월적 도움을 활용한 극적인 서사 전개

조선시대 필기·야담에서 꿈이나 운명과 같이 인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초월적 부분은 극적인 효과를 발휘는 서사 장치로 사용된다. 초월적이라는 말은 현실의 논리를 뛰어넘는 현상을 의미하기에 운명과 같은 초월적 기능은 개인의 처지를 지속하거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영미편·과장』에는 이러한 초월적 도움을 통해 개인의 욕망을 실현해 나아가는 일화에서 해학성을 살필 수 있다. 무엇보다 초월적 도움이 서사 전개에 극적인 효과로 활용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과장>1·5·11·13인데, 이 중에서도 <과장>5가 대표적이다. 지면상 그 줄거리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성	대단락	소단락	단락 내용	서사기제
도입	①	①-1	여주 목사가 황룡이 방석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꿈	꿈=예언
		①-2	머지않아 春塘臺試가 있음	우연
		①-3	목사 아들 대신 座首가 그 방석에 앉음	우연

구성	대단락	소단락	단락 내용	서사기제
전개	②	②-1	목사가 좌수에게 운수를 빌미로 과거에 응시하게 함	履行
		②-2	좌수는 글재주와 비용 문제로 사양함	
		②-3	목사는 비용을 구해주면서 백지로 내면 안 된다고 강조함	
	③	③-1	좌수는 도성에 도착하여 기식할 곳을 찾음	履行
		③-2	출가한 사촌누이와 사촌 형님을 만나 사정을 설명함	우연
		③-3	사촌누이 남편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좌수를 돕기로 함	우연
	④	④-1	좌수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 잠깐 꿈을 꿈	꿈=암시
		④-2	사촌누이가 싸준 약과 종이에서 시험문제 발견	우연
	결론	⑤	⑤-1	약과 종이에 있던 글을 베껴 답안지로 제출하려 함
⑤-2			중간 빠진 글자가 있어 꿈에서 알려준 글자를 써넣음	履行
⑤-3			‘甲科第一’로 뽑힘	실현

<과장>5는 애초 과거에 욕심도 없었던 여주의 座首가 목사의 꿈으로 인해 과거에 응시하게 되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결국 급제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초월적 도움을 주는 서사 장치로 꿈과 예언 그리고 운명이 연용되며, 꿈은 여주 목사의 황룡 꿈과 좌수의 꿈으로 2번이 등장한다.

첫 번째 여주 목사의 꿈은 ①에서 등장하는데, 방석 위에 있던 황룡이 하늘로 올라간 꿈이다. 황룡은 남이 급제할 꿈이기에 예언에 해당한다.¹²⁾ 목사는 자기 아들을 통해 이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황룡이 올라갔던

12) 일례로 『청구야담』(아세아문화사, 1985) 1권 제 7화인 <夢黃龍至誠發宵寐>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영미편』에서 <과장>8, <과장>10에도 꿈은 주된 서사 기제로 활용된다.

방석에 앉은 건 아들이 아닌 좌수였기에 목사는 그를 과거에 응시하게 하였다.¹³⁾ 이렇듯 첫 번째 꿈은 여주 목사 측면에서 보면 자기 욕망의 실현이나 의지를 관철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였기 때문에 운명적 성격에 해당한다. 필기·야담에서 꿈은 현실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조차 용납되는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두 번째 좌수의 꿈은 이와 다른 성격이다.

④-1 아들이 지나고 시험장에 들어가려三更 무렵 弘化門밖에서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좌수는 몹시 피곤해 많은 선비들이 모여서 있는 속에서 앉아 졸았는데, 꿈에 금관은 쓰고 朝服을 입은 어떤 사람이 笏로 좌수의 어깨와 등을 때리며 말했다. “일어나라! 이렇게 ‘拱’자를 잊어버리면 어찌하느냐?” 좌수가 크게 놀라 일어나서, 문이 마침 열렸다. 무리를 따라 萬死一生으로 간신히 시험장에 들어서니 해가 뜨고 시제가 내걸렸다. 그 사촌누이의 남편 및 그와 同學한 몇 사람이 막 머리를 숙이고 둘러앉아 글을 지을 사람은 짓고, 베낄 사람은 베끼는데 모두 어수선하고 허겁지겁했지만, 좌수만은 한가롭게 일 없이 앉아 있었다. ④-2 시험장에 들어올 때 사촌누이가 약과 두 덩이를 찢어진 책장에 싸서 주며 말했다. “시험장에서는 필시 배가 고플 것이니 이것을 꺼내 드세요.” 이때 좌수는 소매 속을 더듬어 약과를 꺼내 먹고는 책장을 보니 원래 이 책장은 『表東人』에서 나온 것이었다. 책장에는 깨끗하게 써진 表 한 편이 竝書되어 있었는데, 앞을 보니 시제에 해당하여 시험장에 내걸린 시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좌수가 글을 짓지는 못해도 어릴 적 『通史』 두세 권은 공부한 터라 대략 몇 글자는 이해할 수 있어서, 이를 보고 몹시 괴이하게 여

13) 李運永, <科場>5, 『瀨尾編』上, 8면, “某年間, 驪州牧使某, 夢東軒方席上, 黃龍盤臥, 忽風雷大作, 衝天而上. 牧使睡覺, 故遲遲不起枕. 時春塘臺試, 期不遠, 意欲觀先坐此席者爲誰人, 俄而牧使之子, 自書室出來問寢, 坐于席邊空地. 牧使曰, “何不即席坐, 坐於知印輩往來之地?” 其子以手推席移身, 坐前鋪席處. 牧使悶甚, 然任之, 遂起盥洗訖, 開戶而坐, 座首直入, 拜謁於席上.”

졌다.¹⁴⁾

인용된 부분에서 보듯이 좌수의 꿈은 시험답안을 알려주는 예언이다. 예언은 명시되거나 암시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拱’이라는 글자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암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꿈은 5에서 난관을 맞닥뜨렸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사건의 전개에 있어 좌수의 미래를 알려주는 실마리를 제공한다.¹⁵⁾

이를 통해 <과장>5에서 꿈은 개인의 욕망과 의지가 담겨 있으면서도, 초월적 존재의 뜻인 예언을 통해 실현되기에 운명까지도 연계된다. 아울러 이러한 초월적 도움은 우연을 가장하여 거듭 등장한다. 4-2에서 사촌누이가 찢어진 책장으로 싸준 약과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찢어진 책장은 답안 작성에 도움을 준다. 이 사건 이전에 1-2에서는 때마침 춘당대시가 있다는 것, 1-3에서는 좌수가 용이 올라갔던 방석에 앉게 된 것, 3-2에서는 사촌누이를 만난 것, 3-3에서는 사촌누이의 남편이 과거에 응시한다는 것, 이 모두가 우연에 해당한다. 즉 이러한 우연은 서사가 전개될수록 누적되면서 결국 운명화된다. 더욱이 우연처럼 등장하여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은 주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어주는데, 그 도움이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며 물질적이다. 또한, 운명과 꿈이라 하여 엄숙하기보다는 극적인 반전을 통해 웃음과 오락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꿈이나 운명과 같은 초월성이 오락과 흥미를 요소로 하는 해학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¹⁶⁾

14) 앞과 동일, 10면, “留二日, 將入場三更量往弘化門外, 待開門。座首疲甚坐睡於多士簇立之中, 夢一金冠朝服人, 以笏打座首肩背曰, “睡了! 如是忘却了‘拱’字則奈何?” 座首大喫驚起立, 門始開矣。隨衆萬死一生艱辛入場, 日出時懸題。其從妹婿及同研諸人, 方低首圍坐, 製者製, 寫者寫, 人皆着忙着慌, 獨座首閒無事坐了。入場時從妹, 以藥果二立裹破册張以贈之曰, “場中必虛蕩, 出此啗之。” 是時座首探袖中, 出而啗之, 啗訖視册張, 元來此册張乃表東人。册張上精書表一篇竝書, 望則當題, 與試所懸題, 無一字加減。座首雖不能作文, 兒時嘗受通史二三券, 能略解幾箇字, 見此心甚恠之。”

15) 이강옥,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366~369면 참조.

이운영의 이러한 서사 전개 방식은 <과장>11에서도 확인된다. 이 일화는 글을 잘하는 선비가 술 때문에 번번이 낙방하다가 어떤 소년의 도움으로 71살에 합격한 이야기이다. 소년의 도움은 우연이지만, <과장>5와 동일하게 우연을 거듭 등장하게 함으로써 결국 운명화하는 방식이다. 이때 사용되는 글자가 ‘忽’이라는 점도 비슷하다.¹⁷⁾ 다른 점이라 한다면 <과장>5에서는 조력자들이 거듭 등장했던 방식이었다면, <과장>11에서는 술을 마시게 하는 방해자들이 거듭 등장한다. 그러나 조부와 형제처럼 지냈던 노인을 알아본 소년이 운명처럼 등장하여 시권을 대신 제출해 줌으로써 노인의 욕망은 일시에 해소된다. 이 또한 운명이 서사 전개에 극적으로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웃음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과장>5와 동일하다.

선비가 말했다. “障子 위에 저 세 폭의 시권은 모두 옛날의 내 試文들이네.” 선비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관 주인은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깜짝 놀라 말했다. “이는 제가 한 짓인데, 생원님의 시권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재앙이 자손에게 미칠 일을 저질렀습니다.” 조대가 말했다. “주인은 그런 말 말게. 이 모두 나의 운수지. 내 오늘에야 과거는 운수에 달렸지 글에 달린 게 아님을 알았네. 내일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주인은 나를 위해 행장을 준비해주게.”¹⁸⁾

-
- 16) 물론 해학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 세세하고 장황한 묘사 등도 활용하였다. 이 부분은 2절에서 상세히 다루기도 한다.
- 17) 李運永, <科場>11, 『瀨尾編』上, 21~23면, “是平生不近口者, 胃氣不開, 強吞則喉棘入, 口者艱辛和涎嚥下肚裏, 在手者還擲柳器. 悄然萬事不入心, 拱坐而已. 忽聞隣接雨傘下二人相語曰, “日寒不久, 試題當懸, 吾輩且飲一盃如何?” …… 撚髭而苦吟, 忽叉手而無心欲更索飲於其人, 而俄既搖首揮手, 過矣過矣, 無顏更去索飲. 或坐或臥, 忍住不得, 遂起身立. 移步彷徨, 忽見不遠地三少年圍坐開壺細酌.” <과장>5에서는 주 14면 이외에도 다음에서 확인된다. “方在苦吟敲椎之中, 座首忽想起夢中忘却了拱字之事, 遽曰, “拱字如何?”
- 18) 李運永, <科場>13, 『瀨尾編』上, 28면, “措大曰, “障子上, 彼三幅券, 皆吾之昔年試文也.” 語未了主人滿面通紅大驚曰, “此乃吾之所爲也, 全不知生員主之試券, 吾乃爲殃及子孫之事矣.” 措大曰, “主人, 休這般說, 此莫非吾之數也, 吾今日始

인용문 <과장>13은 換封으로 인해 70세에 급제한 선비 이야기이다. 회시에 응시하려 반촌에 머물다가 벽지로 사용된 종이가 예전에 자신이 작성했던 시권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祕封을 바꿔치기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일화도 전술했던 일화에서처럼 우연이 운명화되며 그 과정에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이 일화가 해학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환봉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선비가 결국 환봉으로 합격하기 때문이다.

필기·야담에서 초월적 모티브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나타났으나 후대로 올수록 흥미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인다.¹⁹⁾ 즉 초월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자유롭게 생각되면서 흥미성이 강화되는데, 이 절에 나타난 『영미편·과장』의 특징도 이러한 자장 아래에 있다. 다만, 인용문의 “과거는 운수에 달렸지”에서 보듯이 시간성으로 제한하여 戲畫化 함으로써 운명의 무게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기에 이를 이운영 개인적 측면에서 보자면,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 自嘲일 수도 있으며, 자기방어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2) 세밀한 묘사와 반전을 통한 갈등의 심화 및 욕망의 실현

앞서 꿈이나 운명과 같은 극적인 서사 전개를 통해 해학성을 구현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함께 사용된 서사 장치를 거론한다면 세세한 묘사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 거론할 치밀하면서도 장황한 묘사는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 및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주된 장치로 작동하면서 해학성을 유발한다. 여기에도 예견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반전을 통해 독자들의 예측이나 기대를 어그러지게 함으로써 해학성은 농후해진다. 이에 해당하는 일화는 <과장>1·6·31인데, 이 중에서 <과장>6이 대표성을

知科擧在數不在文, 明日吾將歸去, 主人幸爲我措備行具.”

19) 정슬미, 「『청구야담』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7면 참조.

지닌다.

구성	대단락	소단락	단락 내용	서사기제
도입	①	①-1	서울 선비와 시관의 潛通(시권 늦게 내기)	
		①-2	잠통을 알게 된 시골 선비	반전1
전개	②	②-1	시권을 제출한 자들의 한가로운 모습	묘사
		②-2	서울 선비와 시골 선비 탐색전	묘사
	③	③-1	서울 선비와 시골 선비의 대립1	묘사-대화
		③-2	서울 선비와 시골 선비의 대립2	묘사-대화
	④	④-1	서울 선비가 타협 유도	묘사-대화
		④-2	시골 선비가 방법 제시(서로 시권을 바꿔 먼저 내기)	묘사-대화
결론	⑤	⑤-1	시권을 먼저 내기 위한 두 선비의 질주	묘사
		⑤-2	시골 선비가 고의로 발을 헛디터 시권이 연못에 빠짐	묘사, 반전2
		⑤-3	서울 선비의 허탈함과 시골 선비 합격	묘사

위 표에서 보듯이 <과장>6은 가장 나중에 시권을 내기로 한 응시자와 시관과의 潛通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된 장치는 묘사이다. 이 과정에서 해학성은 강화되며 도입부와 결론부에서는 각각 반전을 활용하고 있다. 애초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서로의 욕망을 실현하는 설정에서부터 해학성은 담겨 있지만, 세밀한 묘사를 통한 서사 전개와 도입부 및 결론부의 반전을 통해 해학성은 倍加된다.

먼저 묘사에 대해 살펴보자. 세밀한 묘사가 처음 동원되는 것은 전개부에 해당하는 ②-1이다.²⁰⁾ 이 부분은 도입부와 연계되는 지점으로 반전을 통

20) 李運永, <科場>6, 『瀨尾編』上, 11면, “是時日勢近晡, 臺上連呼試帳, 方掩試券也. 速呈滿場多士, 皆已呈券, 或登壯元峰, 開壺飲酒, 或坐池邊, 掬水洗面, 有障扇熟睡者, 有取水洗飯者, 吸草者, 啗鷄炙者, 摺兩傘捲席者, 來者去者, 立者坐者, 對立而偶語者, 萬殊其狀.”

해 갈등적 요소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와 무관한 서서만이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답안을 제출한 응시자의 모습들이 장황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者’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한가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같은 공간이면서도 긴장감이 팽배한 두 선비와 대척점을 이루는 한가로움이다. 즉 이운영은 갈등을 바로 표면화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장치로 묘사를 활용하였다. ③과 ④에서는 묘사에 주로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²¹⁾ 즉 세밀한 묘사와 함께 대화를 삽입함으로써 사건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장면화하여 독자들에서 실제로 보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밀도 있게 구현하였다. 아울러 두 유생의 욕망은 독자뿐만 아니라 서로가 알고 있는데도 ‘不知’로 대응하는 설정에서 해학성은 배가된다.

⑤-1 이에 두 사람은 시권을 바꿔 들고 각각 움켜쥐고는 3걸음을 1걸음처럼 걸으니, 天神이 등 뒤에서 고함치고 멈추려 한다 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을 지경이었다. 높은 곳은 뛰어오르고 폭 팬 곳은 뛰어넘자 儒巾과 두 귀는 한껏 바람을 맞아 뒤쪽으로 접혀 날리니, 마치 달리기 같아 순식간에 臺 아래에 가까워졌다. ⑤-2 서울의 응시생이 황급히 지방 응시생의 시권을 냈는데, 지방 응시생은 서울 응시생보다 10여 보쯤 뒤에 있다가 그가 시권을 내는 것을 보자마자, 발을 헛디뎈 薑田 귀퉁이의 연못 속으로 빠져버렸다. 더불어 시권도

21) 앞과 동일, 11면, “看看西山下, 忍不得京舉子, 先向鄉舉子問曰, “君胡寫券而不呈?” 鄉舉子曰, “此所謂我歌查唱, 君則何不呈券?” 京舉子曰, “吾則平生性癖, 必呈券於最末軸, 君若呈券則吾亦呈券.” 鄉舉子曰, “惟哉! 君之性癖, 一何與我同耶? 是所謂詩人意思也. 君不呈券, 吾亦不呈券.” 京舉子曰, “若爾則得不曳白乎?” 鄉舉子曰: “遇方冷跡, 寧有春塘試做及第之理? 呈券而落榜, 無毫分勝於曳白, 寧曳白, 吾死也, 不呈卷.” 京舉子曰, “今日夢惡, 遇了鄉曲土木公, 此何等憂患!” 鄉舉子曰, “今夜夢亂, 遇了京華瘡疾魔, 此何等厄會!””

진창 속에 굴러 처박혔다. [5]-3 서울의 응시생이 지방 응시생의 시권을 내고 나서 비로소 뒤돌아서니, 숨은 험덱이고 땀이 비 오듯 했다. 자세히 보니 지방 응시생이 안고 있던 시권은 연못에 빠져있으니 깜짝 놀라 소리치고 말 구름들 이미 어찌할 수 없었다. 지방의 응시생은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다.²²⁾

인용된 부분은 결론부에 해당한다. 전개부에서는 대화체를 삽입하여 갈등을 고조하다가 결론부에서 다시 세세한 묘사로 서사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이 부분에서 생동감을 구현하기 위해 패관소설체인 ‘了’나 ‘和’와 같은 한자를 이전보다 더욱 활용된다. 사건의 흐름을 급박하게 이끌어 간다. 특히 묘사를 통해 서로 다른 각자의 욕망을 위해 분투하는 장면을 촘촘하게 구현함으로써 사건의 긴장감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감은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縱使天神在背後叫了住了, 脚便不聽了.”와 같은 부분에서 보듯이 戲畫된다. 아울러 ‘了’는 백화의 방식이기도 하기에 언어유희로도 사용되었다. 즉 사건의 설정에서부터 내재되어 있던 해학성은 욕망을 실현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과정을 통해 배가되다가, 결론부에서는 생동감 있는 묘사를 통해 표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처럼 묘사는 서사 전개에 주된 기제로 작동하고, 이와 동시에 애초 설정된 해학성을 배가하는 데도 활용된다. 즉 이운영은 내재된 해학성을 지면으로 끌어 올리는 장치로 세밀한 묘사를 선택한 것이다.

한편, 해학성 구현에 있어 묘사만큼이나 重用되는 것이 반전이다. 도입부에서 반전은 흥미 유발에 한정되어 있다면, 결론부의 반전은 해학성의 정점에 해당한다. 앞서 팽배했던 긴장감은 극적인 타결로 이완되면서, 서사 전

22) 앞과 동일, 12면, “於是, 兩人換持試券, 兩券也緊握, 三步做一步, 縱使天神在背後叫了住了, 脚便不聽了. 遇高則跳, 遇凹則超, 儒巾兩耳, 飽受風, 招向後面飛也, 似走去, 瞥然間近了臺下. 京舉子忙忙呈鄉舉子之券, 鄉舉子在京舉子十許武之後, 纔見京舉子之呈券, 乃誤跌足, 落身薑田隅池中, 和試券也, 滾倒渾泥中. 京舉子, 既呈鄉舉子之券, 始回身立, 喘吁吁, 流汗如水. 定睛看了, 鄉舉子之抱券, 落在池水中, 雖驚呼頓足, 已無奈何. 鄉舉子, 遂擢第.”

개에 있어 休止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갈등과 욕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지 주목하게 되는데, 주목되는 지점에 반전이 등장함으로써 해학성은 정점에 달한다.

부정행위를 한 서울 선비가 합격하는 것은 단형 서사의 전통인 事必歸正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서울 선비가 급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사건에 갈등을 유발하며 서사 전개와 열쇠를 쥐 시골 선비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이때 반전이라는 서사 기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써 해학성을 극대화한다. “纔見京舉子之呈券，乃誤跌足，落身薑田隅池中，和試券也，滾倒淖泥中。”에서 시골 선비의 의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이전 사건을 재정리하게 되며, 전개부의 대립과 해결책이 시골 선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속임수의 대상에는 서울 선비뿐만 아니라 독자들까지 포함되어있다. 작가가 설정한 속임수를 알게 된 독자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그 의외성에서 즐거움과 쾌감을 느낀다. 즉 사필귀정의 원칙에 의한다면, 이 이야기는 시골 선비의 고발로 끝나야 한다. 하지만 시골 선비가 악에 동참함으로써, 텍스트 내에 선악의 경계는 불분명해지고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독자는 이끌려 간다. 이때 모순적 상황을 독자로 하여금 顯現(epiphany)하게 한 것이 반전이며, 반전을 통해 사실을 지각한 독자는 작가의 의도성에 웃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양상은 <과장>3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일화는 講을 잘하지 못하는 어떤 선비가 식년시 복시에 합격한 이야기이다. 이 선비는 점을 쳐서 7개 경문을 미리 외웠는데, 7개 중에서 6개가 점괘에서 나왔던 것이고 마지막 1개의 시험문제만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 나온다. 이에 선비는 추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균졸과 농담을 주고받다가 전에 인연이 있었던 기생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때 다른 시험관이 멀리서 응시자인 선비의 편지를 보고 부정행위라 의심하여 다른 문제를 제출했는데, 이 문제는 점괘에 나왔던 것이라 마침내 通을 받고 합격하였다는 이야기이다.²³⁾

여기에서는 講經의 과정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는 <과장>6에서 처럼 갈등을 부각하기 위해 장치로 활용된다. 또한, 묘사가 서사를 주도하며 중간에 대화체를 삽입하여 갈등을 고조한 점도 동일하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의 변명과 시험관의 독촉이 대립을 이루며 웃음을 자아낸다. 다만, 군졸과의 대화에서 기생의 편지를 받게 되는 것과 편지를 부정행위 종이로 여겨 시험문제를 바꾸는 부분에서 보듯이 대화체는 반전과 함께 사용되면서 예견치 못한 서사로 전개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럼에도 반전을 통해 웃음은 극대화되고, <과장>6에서처럼 욕망을 실현되는 장치로 활용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처럼 이운영은 묘사를 통해 갈등과 욕망을 증폭하면서 해학성을 배가하였고, 여기에서 반전을 통해 독자에게 의외성을 선사하면서 해학성을 극대화하였다. 그런데 이 절에서 구현된 해학성은 급제라는 욕망을 위해 부정행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부정행위는 이 밖에도 <과장>8에서는 남의 글을 빌리는 借述²⁴⁾, <과장>22에서는 대리 시험을 치는 代

23) 李運永, <科場>31, 『瀨尾編』上, 44~46면, “世或有弄假成真者, 曾有一箇措大能製而不能講者, 赴東堂中初試者, 親舊皆以不緊沒着落笑之, 措大亦安而受之. 及到會試期迫, 問卜者得七大文講章. 誦習之不數日, 便融會貫通, 開口背誦, 無一字錯誤, 遂赴講席, 連出六講章, 皆一如占辭. 已是誦習爛熟, 竝無事出柱, 至於第七出講章, 乃非占辭所云而未嘗誦者也. 指大乃以虛腸爲托, 討食數三次自帳內, 數加催促, 又托裏急, 請如廁歸, 而應講試官許之, 而使軍士一人伴去防奸. 措大登廁坐, 軍士當廁門立, 措大故久久不起, 軍士促之. 措大曰, “汝是京軍乎? 鄉軍乎?” 曰, “以鄉軍上番矣.” 曰, “居在何邑?” 曰, “某邑.” 曰, “然則汝居邑內耶? 抑在外村耶?” 曰, “邑內居生.” 曰, “汝旣在邑內, 能知某妓乎?” 曰, “知之.” 曰, “好在乎?” 曰, “好在, 然生員主何以知某妓乎?” (中略) 措大曰, “應講至嚴, 何敢私見講章, 又何處得來講章乎? 俄者之紙, 卽袖中休紙, 將以拭穢也.” 出而看之. 試官曰, “胡說! 俄出講大文, 不可施行.” 卽改出他大文, 乃是占辭所曾出者也. 措大便以霹靂講一瞬之頃竝大文諺釋章下註, 如熟路之驅輕車, 氷江之馳雪馬, 讀了已了, 試官皆相顧稱贊, 而出通柱. 是措大公然做明經及第.”

24) 李運永, <科場>8, 『瀨尾編』上, 16면, “這進士, 自是尖尖弱骨, 輕如秋葉, 被權公之肩磨膝逼, 不覺四大全身退出柱外. 試文也, 猶屬餘事, 此身之退出柱外爲悞悶, 乃出袖中草藁, 示權公.”

述²⁵⁾, <과장>11에서는 과거 시험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隨從帶同²⁶⁾에서 확인된다. 이들 일화에서는 부정행위라 할지라도 難望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세밀히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이운영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욕망에만 충실한 세태에 관한 풍자라 하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시험 선발방식과 그 공정함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함께 담겨 있다. 이를 묘사와 반전을 통해 희화한 것이다.

3) 사실적 요소를 활용한 현장감 재현 및 비정상성의 구현

필기·야담에서 해학을 구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바탕에는 비밀상성이나 비정상성을 있음직한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점이 있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었던 일에 대입하여 웃음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영미편·과장』에서도 더 곡진한 현실 반영이 해학성의 강화로 이어지는 일화들이 확인된다.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은 과거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실적인 요소들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술하였던 일화 중에서 春塘臺試는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 친림하여 임시로 행하던 시험으로 조선후기에는 表가 주로 출제되었다. 이 때문에 시험 응시자들에게 『表東人』은 필수 참고서였는데, <과장>5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과장>7·8·10·33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과장>8을 예시로 거론하면 다음 표와 같다.

-
- 25) 李運永, <科場>22, 『瀨尾編』上, 37~38면, “姜聘君與李司諫敏坤, 多年同研於公車文. 某年增廣初試初場, 同席坐做論, 李公見姜公草藁起頭七八行, 乃移席去他處. …… 李公惟而問姜公曰, “君俄者做論, 今又持疑心券來, 何也?” 姜公曰, “俄者之論, 爲季父製呈, 今此券乃吾之券也.”
- 26) 李運永, <科場>11, 『瀨尾編』上, 20면, “赴舉則兩子隨入父, 雖醉倒, 兩子一製一寫, 榜出輒高中, 然會試則每曳白, 前後發解, 近二十次.”

구성	대단락	소단락	단락 내용	서사기제
도입	①	①-1	장인에게 괘시받고 처가살이하는 권공	
		①-2	과거시험이 있으면 반드시 응시하는 권공	
전개	②	②-1	응강에서 고의로 목소리를 작게 함	비정상성
		②-2	시관과 논쟁 끝에 통과함	사실적 요소(講經)
	③	③-1	어떤 재상 자제가 길몽을 꾸고 특정 자리를 선점함	비정상성
		③-2	책문을 다 작성하고 권공과 우연히 만남	사실적 요소(策文)
		③-3	권공이 재상 자제의 답안을 빼앗아 제출함	비정상성
	④	④-1	귀가 중 秘封을 전달하는 사람을 만나 합격을 알게 됨	사실적 요소(秘封)
		④-2	처가에서 榜聲할 때 제물이 있는 곳을 알려줌	사실적 요소(榜聲)
		④-3	하인을 보내 부인에게 자신의 재물을 보관하게 함	비정상성
	결론	⑤	⑤-1	비봉꾼이 방성하며 장인의 재물을 다 가져감
⑤-2			권공이 應榜을 핑계로 장인이 아끼던 말을 요구함	사실적 요소(應榜)
⑤-3			권공의 욕망 실현	해학성

〈과장〉8은 강경시험의 과정, 책문 작성의 방법에서부터 秘封, 榜聲, 應榜에 이르기까지 科擧 진행의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현장감을 재현하였다. 동시에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權公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이 일화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은 노력에 의한 급제가 아니라 꼼수와 같은 부정행위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이 사실적인 배경과 뒤섞이면서 해학성은 구현된다.

②-1 (權公은) 날마다 이렇게 지내다가 應講하는 날이 되니 선비들을 따라가 講席으로 올라갔다. 강할 章을 보자 권공은 목구멍 사이에서 지령이같이 가느다란 소리를 냈다. 작은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듣는 사람들은 그 句讀 分別할 수 없었다. 考官들이 휘장 안에서 말했다. “응시자는 읽는 소리가 왜 그리 낮은가?” 권공이 또 아주 작게 소리 내어 말했다. “밤낮으로 책을 읽다 보니 목에 종기가 나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습니다.” 考官이 말했다. “응시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권공이 또 똑같이 중얼거렸다. 試官이 말했다. “응시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書吏가 말했다. “응시자의 목에 종기가 났다 합니다.” 考官이 말했다. “종기를 앓고 있지만, 강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찌 강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서 出姓하는 법이 있겠는가? 더 큰소리로 읽어보게.” ②-2 권공이 또 작게 중얼대며 말했다. “庚申년 말 강경시험에서 두 번 읽는 법규가 없지는 않지만, 목구멍이 정말 병들어 소리를 높일 가망이 없습니다.” 고관이 말했다. “그렇다면 ‘不’자를 쓰고 물러나게.” 권공이 말했다. “저는 이미 강을 했고, 一字半句도 잘못 읽지 않았는데, 제가 왜 ‘不’자를 쓰고 물러납니까?” 고관이 말했다. “고관이 강을 듣지 못했는데 어찌 出姓 하겠는가?” 권공이 말했다. “저는 읽었지만, 고관계서 듣지 못했으니 이게 어찌 저의 탓이란 말입니까? 시험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구를 읽었는데 네가 잘못 읽었다면 ‘不’자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제가 공공연히 ‘不’자를 씁니까?” 이렇게 만나절을 논쟁하며 권공은 끝까지 버티고 앉아 물러나지 않았다. 고관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마침내 粗를 내주었다.²⁷⁾

27) 李運永, <科場>8, 『瀨尾編』上, 14~15면, “日日如是, 應講日, 隨多士往焉, 及登講席. 見講章, 權公自喉間, 出蚯蚓聲, 低微斷續, 聽者不能卞其句讀. 諸考官, 自帳內問曰, “舉子讀書聲, 何其低微乎?” 權公又細細發聲曰, “晝夜讀講冊, 喉腫, 聲不能高矣.” 考官曰, “舉子云何?” 權公又如前云云. 試官曰, “舉子之言, 不能聽得.” 書吏曰, “舉子喉生腫云矣.” 考官曰, “喉雖病, 講亦重, 寧有不聽講聲而出姓之規? 更高聲讀之.” 權公又細細發聲曰, “既非庚申年末講講無再讀之規, 喉實病, 聲無可高之望.” 考官曰, “然則書不字而退.” 權公曰, “吾已讀講而無一字半句聽讀, 吾豈書不字乎?” 考官曰, “考官不聽之講, 何以出姓乎?” 權公曰, “舉子讀而

인용문의 사실적 요소는 일화의 배경으로 설정된 講經科이다. 무엇보다 강경시험의 과정이 구체적이고 핏진하게 반영되어 있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史的 기록에서는 시험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기에, 시험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 이러한 이유로 <과장>8과 같이 과거시험 과정을 담은 일화는 史的 기록의 여백을 메워준다.

강경시험 방식 및 절차는 成俔의 『慵齋叢話』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⁸⁾ 인용문에서도 『용재총화』와 같이 시관의 평가 방식이 등장한다. 우선 평가는 通·略·粗·不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粗 이상이 합격이다.²⁹⁾ 아울러 통보 방식을 出牒이라 하는데, 試官이 패쪽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서리가 받아 응시자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시관은 권공이 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스스로 ‘不’를 쓰라 하였다. 또한, 시관이 장막 속에 있는 것은 응시자와 평가자를 분리해 서로가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이다. 이를 隔帳法이라 하는데, 중종 39년 정식화되었고 이후 숙종 31년 『典錄通考』에 의하면 시관이 응시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더욱 구체화하였다.³⁰⁾ 즉 인용문에는 이러한 사실적 요소들이 핏진하게 배열되어 있다.³¹⁾

考官不聽，此豈舉子之罪乎？自試所明言‘某句讀，汝誤讀，則可書不字。’不然而舉子公然書不字乎？”爭難半日，權公，竟堅坐不退。諸考官不堪支離，乃出粗牒。”

- 28) 成俔, 『慵齋叢話』 卷2, “講經之法, 書字號付於四書五經, 又書字號於牒貯筒中, 舉子書所講書名而納之, 試官抽牒, 如抽天字, 則考經書所付天字, 只書大文以授. 舉子讀大文釋之, 試官講論註疏, 胥吏書通·略·粗·不四字, 以爲講籤, 各置於試官前. 一書講畢, 則胥吏持虛牒, 從下而上, 試官以次點講籤, 從多取之.”
- 29) <禮典>, 『經國大典』 卷3에 의하면 구두·훈석이 오류가 없고, 강론이 博通은 아니지만 大旨를 잃지 않는 자를 粗, 구두·훈석이 분명하고 大旨에 통하나 融通하지 못한 자를 略, 구두·훈석이 精熟하고 旨趣가 융통하며 辨說이 명쾌한 자를 通으로 한다고 하였다.
- 30) <選舉考> 4, 『增補文獻備考』 卷187, “科學講經試, 隔以來帳, 使不得與舉子相見, 臺諫則分坐帳外, 舉子入門時錄名, 舉子名下及其名紙上端, 書填字號.”
- 31) 사실적인 요소는 동양고전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상세히 논하였으므로,

권공의 응시 방법은 꿈수로, 현실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늘 가능한 일은 아니며 올바른 방법도 아니기에 비정상성이라 할 수 있다. 권공은 시험을 앞두고 준비는커녕 술만 마셨다.³²⁾ 그러다 강경시험이 시작되자 목에 종기가 생겨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한다. 시관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할 것을 응시자인 권공에게 요구하지만, 요구대로 이행되지 않자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그런데 권공은 목소리만 작았을 뿐, 강을 했고 강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한다. 결국, 시관은 3등급에 해당하는 粗가 쓰여진 패를 던져주고 강경시험은 마무리된다. 권생의 뻔뻔함과 이 뻔뻔함에 찢찢매는 시관의 모습이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성으로 구현된다.

③에서 책문을 작성할 때, ④에서 祕封과 榜聲할 때, ⑤단락에서 應榜할 때, 역사 사실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고 이 과정마다 권공의 속임수가 등장한다. 이로써 서사가 전개될수록 해학성은 농후해지는데, 이러한 해학성은 ⑤단락에서 정점에 이른다. 권공의 애초 목적은 급제가 아니고, 자신을 하찮게 대하는 장인이 아끼던 말을 타는 데에 있었다.³³⁾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실현하고자 했던 욕망이 결국 급제가 아니라는 반전에 해학성은 정점에 이른다. 그런데 이 반전 또한 비정상성에 해당한다. 도입부에서부터 결론부인 ⑤-2까지 독자는 권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급제라는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맹목적인 사람이라 여길 것이다. 급제는 立身揚名의 실현이기에 조선시대에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권공과 같은 행위가 비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런데 이해가 가능했던 수준의 비정상성에 다시 한번 비정상성을 부여함으로써 독자는 그 모순적 결말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는

이 지면에서는 생략한다.

- 32) 앞과 동일, 14면, “某年間, 參榜於別試初試, 多士之得初解者, 皆日夜着忙讀講作文, 獨權公則不讀不做, 聞隣家有酒, 夙往飮了.”
- 33) 앞과 동일, 18면, “權公每曰, “及第非快, 聘丈愛此馬, 平日不曾許我五七里騎出, 今吾得此, 爲快事也.””

사실적 요소가 짙긴한데, 이러한 사실성과 대비되어 욕망 실현을 위한 동원 방법은 비정상적이며, 여기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욕망도 비정상성을 지니면서 해학성은 부각된다.

동일한 양상은 <과장>33에서도 확인된다. 이 일화는 親臨殿講이라는 사실적 요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殿講은 1년에 4차례 성균관과 사학의 居齋하는 유생 중에서 일부를 낙점하여 경서를 강송하는 시험으로 조선후기에는 四孟朔이나 짝수 달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日次殿講이 제도화되었다.³⁴⁾ 숙종 때부터 응시자가 증가함에 따라 科場이 엄격히 관리되지 못하였기에 영조는 관리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모든 시험에 親臨한 것이다. 즉 <과장>33에는 이러한 배경이 곡진하게 담겨 있으며, 작가는 이를 통해 현장감을 구현하였다. 특히 사서삼경에서 하나씩 총 7개의 大文이 체출되고 諺釋과 章下註까지 외워야 하는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³⁵⁾

이 일화에 등장하는 선비는 6번째 강장까지 무사히 통과하고 마지막 7번째 강장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궁녀의 섬섬옥수와 푸른 눈동자를 보고서 情慾이 발동하여 머릿속에 새겨져 있던 사서삼경이 모두 날아가 버려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³⁶⁾ 이처럼 시험 배경과 시험 과정을 충실히 재현하며 현장감

34) 원창에 외5명,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87면;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 2014, 134~143면 참조.

35) 李運永, <科場>33, 『瀨尾編』上, 46~47면, “一措大, 自是雄經, 累次應講, 而見講章則必動誤讀而落第. 最晚年居太學下齋, 赴親臨殿講, 又不通而出來, 知舊往問, “今番又胡爲而不通? 誤讀者是何經書何大文那箇字乎?” 一措大曰, “數也, 無可奈何. 吾之眼中及肚裡, 森然布列詩·書·易·庸·學·論·孟大文, 與大註小註, 竝諺解開刊得分明, 我也聲如洪鍾, 唇聲·齒聲·舌聲, 皆足以協五音六律, 吾寧有講不通之理? 向者累次不通者, 講席每紛擾, 吾心輒動. 帳外之書吏也臺諫也, 咳嗽聲唱啞聲, 帳內諸試官之爭難也, 私酬酢也, 讀講時以扇拍案而稱贊者, 無非動心處, 所以吾每不通者也. 今番則異於前之應講, 既陞殿曲拜, 坐講席, 諸試官承旨翰林注書, 皆伏抑首, 四面無咳嗽唱啞聲, 一殿之內, 肅穆穆, 御座前, 香爐篆烟繚青香氣襲人. 當是時, 吾心清意專, 六講章, 竝已純通, 及第已是我掌中物耳.”

36) 李運永, <科場>33, 『瀨尾編』上, 47~48면, “讀到此, 乃微側身開眼, 將瞥然讀四五字. 眼方開時, 忽見白雲色木綿揮帳, 圍了寶座之後, 無風而帳忽拂動, 帳

을 구현하였고 이러한 서술은 서사 전개에 몰입감을 부여한다.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정상성을 통해 해학성이 구현된다. 과거시험과 같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정욕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은 쉽지 않다. 결국, 자신의 욕망이 또 다른 욕망에 의해서 좌절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 해학성이 구축된다.³⁷⁾

지금까지 허구성이 강한 서사물에 사실성을 담보로 한 일화들을 살펴보았다. 주로 사실적 요소나 역사적 인물을 통해 서사의 극적 효과를 배가하면서 해학성을 구현한다. 특히, 이 절에서 해학성은 악의성이나 대립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웃음과 재미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비정상성을 상식의 파괴나 비합리성으로 보는 비판도 담겨 있지만, 동정적 시선 또한 내포하고 있다.

4. 『瀨尾編·科場』의 의의와 한계

『영미편』의 저술목적은 전술하였듯이 웃음과 재미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운영이 저술 목적을 위해 사용한 서사 기제들을 중심으로 『영미편·과장』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 일화에 여러 가지의 서사 기제가 활용된 만큼 해학성을 중심으로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즉 극적인 서사 전개를 위해 초월적 도움을 활용한 양상, 갈등의 심화와 욕망의 실현을 보여주기 위해 세밀한 묘사와 반전을 활용한 양상, 비정상성을 구현하기 위해 사실적 요소를

之每幅線縫處，有纖纖玉手指尖勾引帳子縫罅。處處皆有隻眼，有定睛者有瞬睫者，白睜青瞳，千態萬狀，吾丹田上跳出一箇物。忽然吾之眼前，森森肚裡開刊四書三經，皆飛去，斜陽風，我胸中黑窠窠。便與史略初卷天皇地皇人皇氏，千字文天地玄黃，都忘了，這四五百一旬節，遂不通。數也，無可奈何。”

37) 지면상 제한으로 소개하지 못했지만, <과장>10에서는 南九萬과 같은 역사적 인물이나 동대문과 마장교와 구체적인 지역을 동원하여 있음 직한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다 황룡과 비정상성을 동원하여 상식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게 한다.

활용한 양상으로 나누어 논의를 개진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확인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구성이 강한 서사물임에도 사실성을 담보로 한 점이다. 이는 18세기 필기·야담의 특징을 공유한다. 둘째, 해학성이 두드러지는 일화들은 세밀한 묘사와 치밀한 전개를 바탕으로 한 장편이라는 점이다. 셋째, 전대 문헌을 轉載하는 경우 보다는 적극적으로 재창작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창작한 일화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 중에서 둘째와 셋째가 『영미편』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둘째와 셋째의 특징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에, 이를 통해 『영미편·과장』의 의의와 한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장편에 해당하는 작품에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대부분 가상의 인물로 설정되어있고, 가상 인물은 응시자로 재설정 되어있다. 가상 인물로의 설정은 사실성과 대비되는 허구성을 동일하기 위함이다. 가상 인물이 응시자로 재설정된 것은 치열한 욕망의 성취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울러 치열한 만큼 현실과 대비되는 비정상성을 가능케 하여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설정은 웃음을 위해 철저히 의도된 장치이다.

이 의도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화는 <과장>31이다. 아울러 현전하는 문헌에 제한하면 전대문헌을 變改한 것은 <과장>31이 유일하다. 이 일화와 비슷한 이야기는 『梅翁閑錄』(천리대본 299화, 장서각본 40화, 패림본 42화) 및 『記聞叢話』(연세대본 412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이야기는 <과장>31 후반부의 내용과 흡사하며 전반부는 생략되어 있다. <과장>31은 『매옹한록』과 같은 야담집을 바탕으로 變改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야담집에 수록된 일화에 비해 장편이고, 역사적 인물이 가상 인물로 설정되어있으며, 서사 전개에 세세한 묘사와 치밀한 구성이 더해졌다. 즉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서술 시각을 변형하였다. 그런데 <과장>31은 『靑邱野談』(버클리대본 권1)에서도 확인되는데, 무명씨가 呂聖齊(1625~1691)로 설정된 것을 제외하면 <과장>31과 거의 비슷하다.³⁸⁾ 이를 통해

38) 이 일화의 차이점은 다음 두 역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김동욱 옮김, 『國譯 紀聞叢

선후 관계를 추적해 보면 朴亮漢(1677~1746)의 『매옹한록』을 이운영이 보고서 <과장>31을 재창작하였고, 이 이야기가 19세기 『청구야담』과 『기문총화』에 수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일화는 『매옹한록』 계열과 『영미편』 계열로 이분되어 후대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³⁹⁾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영미편·과장』은 사실성이 부각된 일화도 있지만, 해학성을 추구한 일화는 웃음을 위해 철저히 의도된 저술이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흥미와 재미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형식적 측면에서 사용된 서사 기제 및 치밀한 구성을 고려할 때, 소설적 성취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전술한 점으로 볼 때 『영미편·과장』에서 무명씨로 설정된 장편이 순수 창작물일 수도 있지만, 현재 전해지는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기에 전대 필기·야담을 變改하였을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8월 18일(화요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8월 19일(수요일)부터 9월 18일(금요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9월 20일(일요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話』下, 아세아문화사, 2008, 138~139면; 이강옥 옮김, 『청구야담』 상, 문학동네, 2019, 190~194면 참조.

39) 한편 <과장>18의 내용은 李義平(1772~1839)의 『溪西雜錄』(성균관대 존경각본)과 『記聞叢話』에서 變改되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야담의 傳承과 變改에 대한 문제는 추후 다른 지면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朴亮漢, 『梅翁閑錄』(일본 천리대 소장본)
李運永, 『瀨尾編』(일본 경도대 가와이문고 소장본)
편자미상, 『記聞叢話』(연세대 소장본)
편자미상, 『靑邱野談』(미국 버클리대 소장본)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kostma.korea.ac.kr)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sjw.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 권기성, 「야담에 나타난 조선후기 과거문제의 현실과 대안적 상상력 -법과 정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7, 한국고소설학회, 2019.
- 김동욱 옮김, 『國譯 記聞叢話』, 아세아문화사, 2008.
- 김준형,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 39, 동방한학회, 2009.
- 김학수, 「고시 공부는 비교도 안 될 처절한 과거 공부」,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 2014.
- 신현용, 「옥국재 『瀨尾編』의 자료적 특징과 가치」,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원창애 외 5명,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유몽인 저, 신익철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 이강욱 옮김, 『청구야담』, 문학동네, 2019.
- 이강욱,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 임원혁, 「서사문 속의 과거 이야기」, 『대동한문학』 38, 대동한학회, 2013.
- 임채은, 「玉局齋 李運永의 가사문학 연구 -유회적 성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솔미, 「『청구야담』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순후,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차미희, 「계암일록을 통해본 17세기 전반 문과 경상도 향시」, 『한국사학보』 53, 고

大東漢文學 (第六十四輯)

려사학회, 2013.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사전』 하, 국학자료원, 2006.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YoungMiPyen·GwaJang』
from the Viewpoint of the Sense of Humor**

Kim, Kyung* · Lee, Jinkyu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GwaJang」 in 『YoungMiPyen』, the work of Lee, Un-yeong (1722~1794). To this end, the discussion was limited to the sense of humor which was the purpose of his writing. This paper examines characteristics of 『YoungMiPyen·GwaJang』, focusing on tools of narratives used by Lee, Un-yeong to show the sense of humor, and categorized them into three types. In other words, the discussion is divided into the aspect of using transcendental facets for the development of a dramatic narrative, the aspect of using detailed descriptions and twists to show the deepened conflict and the realization of desire, and the aspect of using factual elements to realize abnormality.

Through this process, it confirms that episodes that the highlighted sense of humor are commonly composed as full-length pieces, and subjects leading narratives in the episodes are mostly set up as fictional characters, and fictional characters are reset as applicants for the state examination. The fictional character is set to mobilize the fictionality that contrasts with the reality, and resetting the fictional character into applicants is to reveal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hinese characters&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reload4@korea.ac.kr

** Interdisciplinary Course for Translating Korean Texts in Classical Chinese, Sungkyunkwan University, moksha99@daum.net

minutely the intense process of fulfillment of the desire. In addition, 『YoungMiPyen·GwaJang』 has a novelistic achievement because it realizes densely plotted episodes in order to add interesting and fun aspects.

Key Words : Lee, Un-yeong, YoungMiPyen, Pilgi and Yadam, the State Examination, the Sense of Humor.